

신임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인터뷰

“포용교육·실력광주 다 잡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 학생들 성적 떨어져 안타까운 상황
미래교육 정보화 관련 예산 대폭 늘려야
방학중 학교급식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행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식을 열고 직선 4기 임기를 시작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담아 광주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이어가고, 실력은 키워 우리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광주교육의 다양성을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2% 포인트 차로 낙선한 뒤 재도전에 나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준비된 교육감’을 자처한 그는 ‘실력광주’와 ‘초고 방학중 급식’ 등의 공약을 취임 1호 정책으로 시행하는 등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그를 만나 광주교육 비전과 교육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실력광주 공약에서 ‘실력’은 어떤 의미인가
▲실력과 학력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실력은 크게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능력,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민의식,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 능력, 여기에 기본적인 학력이 어우러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의미한다. 흔히 실력광주하면 수능 성적 위주의 특강대학 진학, 성적 줄세우기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력은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

—광주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전국 하위권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초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하위권 학생들은 교실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면 과거 2~4등급은 높은 비율이었으나, 최근 들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광주 일반계 고교 상위권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의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미래교육을 강조했는데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정보화교육, 미래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교육청의 정책적 준비는 다소 아쉽다. 미래



교육 정보화 관련 사업의 수와 예산 투자액이 전국 하위권이다. 올해 광주 교육청 정보화 사업예산은 210억원인데 반해 대전교육청 680억, 울산교육청은 319억원이다. 대구교육청은 광주보다 예산이 2배나 많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방학중 학교급식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 초교 1,2학년 아이들이 방학중 학교에서 돌봄을 받지만, 정작 점심은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거나 도시락을 사먹어야 한다. 방과 후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도 찬성한다고 본다. 다만, 초기 기획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앞으로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 협의의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 방학중 학교급식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문제인 만큼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양보해서 원만하게 추진됐으면 한다.

—시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전하실 말씀.
▲이제 광주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가 오늘의 광주를 만든다면 내일의 광주는 광주교육청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실리컨밸리는 캘리포니아 시가 만든 게 아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이 컴퓨터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그 교육이 바로 실리컨밸리를 탄생시켰다. 최선을 다해, 정말로 일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

교육전문가이자 행정가인 이정선 교육감은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광주교대 6대 총장을 지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기본에 충실 전남교육 대전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교육 기본소득 제도 바뀌더라도 실현
과감한 지원 농어촌교육 경쟁력 강화
미래교육 실현 통해 지역소멸 극복 동참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도교육감으로 출발을 알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미래교육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역소멸 위기와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려 한다”며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상상하는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인 기본소득추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여건 등을 동시에 개선해 청년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교육만큼 전남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속이다. 선거 기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본소득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소멸 고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실현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다. 다만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차 재원으로 하려한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제도상 걸림돌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열악한 전남교육환경 어떻게 극복하겠나.
▲전남교육의 오래된 숙제는 학생 수 감소와 농어촌교육의 교육력 저하를 막는 것이다.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한다. 이제는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교과를 뛰어넘는 창의융합 교육은 작은학교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작은학교가 미래교육 역량을 갖추어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내



실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학시스템도 구축해 가겠다. 중등교원의 교육역량과 진학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위기극복 대안은.

▲제가 강조했던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이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전남형 교육자치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창의력을 높여야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워야 한다. 과감한 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가 되게 하겠다.

—지역민과 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이번 선거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선거기간 동안 공부하는 학교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공부하는 학교,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먼저 만들어 가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원도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모두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이 공부하는 학교의 첫 걸음이다. 교육가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김 교육감은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4년 목포정명여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단에 투신했다. 이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뒤 목포시의원(3선)과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주민직선 1기와 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 당대표 적합도 이재명 35.7% 1위...박용진 16.8% 2위

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35.7%로 집계돼 1위

를 기록했다. 박용진 의원은 16.8%, 김민석 의원은 6%로 집계됐고 전재수 의원(3.4%), 강병원 의원(3.4%), 강훈식 의원(1.5%)이 뒤를 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18.7%, ‘잘 모름’은 9.2%, ‘기타 후보’는 5.3%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한정할 경우는 이 의원의 지지율이 72.7%에 달해 박용진 의원(8%), 김민석 의원(3.7%)을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9%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5.6%였다. 두 정당 지지를 격차하는 5.3%포인트다. 두 정당간 지지를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5.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1%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尹대통령, 초대 치안총수 윤희근 차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치안총수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차장을 새 경찰청장에 낙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밝힌 김창룡 현 경찰청의 사표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청장 사표수리와 관련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의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맡고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데 이어 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직행하게 됐다. 경찰은 민갑룡, 김창룡 청장에 이어 3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 수장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